

유럽 수놓은 한국 조각·설치미술

July 28, 2016 | 조상인 기자

유럽 수놓은 한국 조각·설치미술

한국의 미술가들이 유럽 미술의 심장
을 저격했다.

이탈리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조각
가 박은선은 르네상스 미술의 중심지인
피렌체시의 초청을 받아 지난 20일(현
지시간)부터 미켈란젤로 광장을 비롯한
도심 주요 장소에서 대규모 야외 조각전
을 열고 있다. 현대미술의 성지인 파리
퐁피두센터의 중앙홀 '포럼'에서는 독일
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을 누비는 설치작
가 양혜규의 개인전이 한창이다. 작가
이우환이 미국 구겐하임미술관 개인전
이후 프랑스 베르사유궁전 전시를 통해
저력을 재확인시켰듯 이같은 '열린 공
간'에서의 전시는 관람객뿐 아니라 현지
인과 관광객에게까지 강한 인상을 남기
며 작가가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예술적 자부심이 높은 유럽에서 빛을 발
한 한국작가의 활약이라 더 반갑다.

◁미켈란젤로를 깨운 박은선=피렌체
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미켈란젤로 광
장에 고대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를 연상
케 하는 박은선의 13m 높이 대리석 작
품이 우뚝 섰다. 대리석과 화강암을 번
갈아 썼고 다듬은 나선형, 쌓아올린 구
(球)형 등 3점의 조형물은 수백년 전부
터 광장에 있던 것처럼 어우러졌다. 작
품은 광장의 청동 다비드상, 피렌체의
상징 두오모 성당, 미켈란젤로가 문
산타크로체 성당의 천장과도 절묘하게
어우러져 현지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피렌체 시 미켈란젤로 광장에 설치된 작품 옆에 선 조각가 박은선.

조각가 박은선, 피렌체 초청으로 市 곳곳 14점 우뚝 설치작가 양혜규, 파리 퐁피두센터서 블라인드 선택

총 14점의 조각은 매디치가의 피티공과
베키오궁 앞, 피렌체공항 등 8곳에 놓였
다. 피렌체시 문화부가 주관하는 '피렌
체의 여름' 프로젝트로 9월18일까지 열
릴 예정이다. 이탈리아 내에서도 문화적
자존심이 높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피렌
체시는 지역민 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소개하고자 매년 야외
조각전을 개최한다.

전시 개막 후 방한한 박은선 작가는
"전시 초청 후 최고의 전시를 만들겠다
는 생각으로 1년전 준비했고 5월부터 2
개월 이상 설치를 했는데 30톤에 이르는
대작이라 안전진단 등 까다로운 과정이

꽤 힘들었다"면
서 "광장의 넓이
와 주변 건축물,
피렌체 유적들의 색깔과 형태를 고려해
작품의 크기와 형태를 만들었는데 자연
석이라 고풍스러운 도시와 어울려 만족
스럽다"고 말했다. 경희대 조소과, 이탈
리아 카리리 국립미술원을 졸업한 박은
선은 대리석 산지에서 가까운 조각도시
피에트라산타에서 24년째 작업하고 있
다. 두 가지 대리석이나 화강암을 교차
해 쌓으며 틀에 균열을 내 '숨통'을 만든
는 고유한 방식이 통양적 정서를 품은
현대조각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퐁피두센터를 제압한 양혜규=퐁피
두센터의 중심부인 중앙홀의 '포럼'은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3개 층을 아우르
는 100㎡규모의 공간으로, 입장권 없이
도 들어갈 수 있어 연간 350만 명의 퐁
피두 방문객이 꼭 지나치는 곳이다.

이곳에 높이 13m의 블라인드 설치작
품인 '좀처럼 가지지 않는 누스(nous·
그리스어로 지성)'가 오는 9월 5일까지
전시된다. 초록빛 옥색과 연
분홍색의 두 가지 삼지형 블
라인드 총 200여 개로 구성
된 이 작품은 블라인드가 열
리고 닫힘에 따라 빛의 양과
각도가 수시로 바뀌며 색깔
을 달리 보여준다. 양혜규는
가리는 동시에 속을 보여줘
"반투명성과 투명성의 긴
장"을 드러내는 '블라인드'
를 10년 이상 작품 소재로
이용했고, 이번 작품은 그 정점을 보여
준다.

특히 리처드 로저스와 렌조 피아노의
삼립적 설계로 태어난 퐁피두센터는 자
칫 작품을 제압하기 심상치 않다. 양혜규의
경우 "열림과 닫힘의 경계를 넘나드는
블라인드"로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
번 전시와 연계해 오는 10월21일에는
퐁피두센터 내 강당에서 작가와의 대화
가 개최될 예정이다.

7/28일자 기사 ccs1@sedaily.com